

친환경 플랜트-신개념 주거-스마트건설로 '행복경영'

SK 건설, 飛上 2020 전략



참여형 경영 위해 행복위원회 신설
스마트 컨스트럭션 적극도입 예정
3월 부평 부개서초교 북측지역 등
올 재개발 아파트 7363가구 분양



안재현 SK건설 사장



SK건설의 화공플랜트.

탕부문장과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Biz 대표 등을 역임하며 '해외통'으로 알려진 안재현 사장의 능력이 발휘됐다는 평가다. 취임 후 실적과 재무구조 약화로 고민하던 안 사장이 해외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았다는 평이다.

특히, 유럽에서의 수주가 큰 성과로 꼽힌다. SK건설은 서유럽 플랜트시장에 기본설계(FEED)분야로 진입했다. SK건설은 작년 6월 영국 런던교통공사가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같은 달 벨기에에서 PDH 플랜트를 수주했다.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진입에 대한 지도 돋보인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를 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1~3위 자리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순이다.

한편 SK건설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7363가구(일반분양 3299가구) 재개발 아파트 분양을 준비 중이다. 우선 오는 3월 부평 부개서초교 북측 지역에 총 1559가구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898가구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SK건설은 '행복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통해 친환경·도시화 사업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개념 주거상품을 선보이고 스마트 건설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SK건설은 올해를 '행복경영의 원년'으로 내세웠다. '비즈니스 모델(BM)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해'로 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재현 SK건설 사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경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경제적 가치(EV) 및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하며,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경영' 원년...참여형 경영 실천
SK건설은 올해 친환경 및 도시화 사업 비중을 넓힐 계획이다. 연료전지, 친환경 플랜트 및 발전, 신개념의 주거상품 등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화·표준화·모듈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조직 관련 비전도 제시했다. SK건설은 자기 완결형 조직인 스워드 조직을 확대한다. 스워드 조직은 경제적 가치(EV)와 사회적 가치(SV) 창출이 가능

하도록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데 집중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조직 변화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구성원 참여형'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행복위원회를 신설해 최고경영자(CEO)와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 그 내용은 실제 회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안 사장은 "올해는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위해 보다 깊게 접근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복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적호조...올 7363가구 분양

SK건설은 지난해 2018년 실적악화를 딛고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692억원

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을 감안하면 2017년 영업이익(2023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당기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7년 555억원, 2018년 694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 136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분기별 평균 매출액은 1조8492억원으로 전년도 평균액 1조6089억원을 뛰어넘은 상황이다.

2018년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이후 SK건설의 영업이익은 867억원으로 직전년도(2023억원)의 42%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와 함께 사고수습비용으로 기타충당부채 560억원을 계상했다.

SK건설은 작년에 해외에서 호실적을 기록했다. SK건설에서 글로벌마케

반도체株 굳계일학... 삼성·SK 코스피 시총 30%

삼성전자·SK하이닉스 최고가 기록
반도체 업황 회복에 상승여력 충분

주식시장에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도체 붐'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회사를 합친 시가총액은 421조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0% 돌파도 눈앞에 뒀다.

삼성전자는 연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는 중이다. 지난 9일 5만8600원을 기록해 1975년 6월 11일 상장 이후 약 45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이튿날 1.54% 오른 5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를 연속으로 새 기록을 쓴 셈이다. 이전 최고가는 2017년 11월 1일이었다.

SK하이닉스도 10만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10일 100원(-0.1%) 하락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 9일 9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를 연속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외국인의 '삼성 사랑'... 올해 6268억 원 매수

반도체주는 장밋빛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은 지난해보다 30%에 가까운 이익 증가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하느냐"는 고민이 일고 있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발표도 반도체 주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7조1000억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0조8006억원)과 비교하면 34.3%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6조5000억원) 수준보다 10% 이상을 웃돌았다. 예상치 못

(증권사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상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H투자증권	7만4000원	유안타증권	14만원
유안타증권	7만2000원	하이투자증권	13만원
현대차증권	7만1000원	NH투자증권	12만5000원
미래에셋대우	7만원	한국투자증권	12만원
하이투자증권	7만원	삼성증권	12만원
KB증권	7만원	현대차증권	12만원
대신증권	7만원	유진투자증권	12만원
키움증권	6만9000원	미래에셋대우	11만5000원
한국투자증권	6만8600원	대신증권	11만5000원
유진투자증권	6만7000원	KTB투자증권	11만원

했던 '깜짝실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에서 비롯된 중동 리스크도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막진 못했다. 매수세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외국인은 지난 10일 장 마감까지 올해 6268억원치를 순매수했다. 7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900억원치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삼성전자우도 269억원 순매수했다.

◆"어디까지 오를까"... 증권사 전망은

삼성전자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음에도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이뤄지며 실적 반등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개선 폭이 가장 큰 섹터가 반도체일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눈높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NAND)의 평균판매단가(ASP)가 계속 올라갈 것이며 출하량도 양호할 것"이라며 "실적개선이 확실시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스마트폰 사업 부문

(IM)에서도 출하량 증가와 폴더폰 등 이익률이 높은 고가폰의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6만8000원 정도다. 현재 주가 대비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가.

삼성전자와 더불어 SK하이닉스의 예상 주가도 대폭 올라갔다. 미래에셋대우가 11만5000원, 하이투자증권이 13만원, 삼성증권이 12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두 회사 모두에 평균보다 높은 예상 주가를 책정했다. 삼성전자가 7만2000원, SK하이닉스가 14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운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할 전망"이라며 "올해 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부문 합산 매출액은 88조원으로 작년보다 1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조원으로 92% 늘어나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을 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태희기자 alvin@

금감원에 라임 분쟁조정 100여건 접수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 후
손실액 확정돼야 조정 시작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분쟁조정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분쟁조정이 접수되는 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해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2호 ▲플루토 FI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액은 4389억원이다.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 1조5587억원의 28.2%다.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국내선 애국펀드, 해외선 中펀드 강세

주간펀드동향
국내주식형 4100억 유출

국내주식형 4100억 유출

국내 주식시장은 중동발 리스크에 한 때 주가가 크게 출렁였지만 반도체주의 약진으로 하락폭을 만회했다. 국내펀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많이 담은 펀드가, 해외에서는 중국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월 3일~9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소폭 상승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1.37% 올랐다.

해당 기간 국내주식형펀드 자금은

4100억원 유출됐다. 한동안 지속하던 순유입세가 반전하면서 순자산은 72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8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러시아가 2.62%로 수위를 기록했다. 또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중화권(1.79%), 친디아(1.54%) 등도 올랐다.

해외주식형펀드도 60억원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수익률 상승에 따라 순자산은 181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이른바 '애국펀드'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Amundi)필승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ClassC'(3.18%)로 집계됐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